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지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FAX: (031)470-3116

법공양 페이지

못 생명 둘 아니게 돌아가면 해탈문

15면에서 계속

양으로 예를 쓰면 얼마나 더디겠습니까? 보시(布施)라든가 지계(持戒)라든가, 인욕(忍辱)이라든가 정진(精進), 선정(禪定) 이런 문제를 다 각각으로 생각 한다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러나 내 몸뚱이 속에 그 여섯 가지 뿐 아니라 천차만별로 있습니다. 왜 여섯 가지뿐이었습니까? 여섯 가지를 정해 놓는다면 더 이상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때 스스로서 한마음에다 모든 것을, 선도 감사하게 놓고 악도 그렇게, '악하게 되는 것도 그 속에서 나온 거니까 선하게 나오는 것도 너다.' 하고 모든 걸 다, 선과 악을 다 봤을 때 비로소 스스로서 생선이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예 목적을 놓는다 팔이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공과 팔, 일체를 모두 다 한대 생선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현도 되고, 법신도 되고, 부처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지장도 되고, 칠성도 되고, 아축도 되고, 아미타도 되고, 미륵도 되고 전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한마음 속의 자생중생들에게 항복을 받아야, 조복을 받아야 일체중생들을 내 아님 없이 조복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공부 하는 데에 여러분한테 어떻게 꼭 집어서 말을 해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참 답답해요. 그렇게 생각할 때, 방에서도 이렇게 뒷집을 지고 거닐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면은, '아이고 참, 이거는 어떻게 봐 보일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좋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거를 모르고, 급한 것도 모르고, 그냥 급하게 죽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애들이 뛰는 거와 같어요. 그리고 글세,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만 여기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합니다.

자생중생부터 제도

아침이면 자기 가서 한 30분 동안 걸립니다. 걸으면서도, 뒤 눈에는 뒤편 보인다고 그러죠? 하하하... 개 눈에 똥만 보인다고 그러고 하하하... (대중 웃음) 그렇듯이 하하하 나무 한 그루를 봐도 풀 한 포기 봐도 모두가... 그러니까 먼저 생각나는 거는 나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겠지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만, 그 사람 뺨속에 있는 그 해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다 제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생각이면 제도가 되는 건데, 아주 정말, 내가 이 소리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인데,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래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없고, 빨리 죽어야지 할 수도 없고, 하하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리공리 하다 보니까 '응, 모두 내가 왜 죽어 되겠구나. 내가 꼭 보이는 것만 그렇게 즐겼더니 내가 왜 되니까, 아, 죽었다 살았다 할 게 없이 그냥 여여하구나.'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자기가 소중한 줄 알아야지, 자기 몸뚱이가 지수화공이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몸도 내 몸이 아니라 바로 자생중생들이 수없이 살고, 바깥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살고, 그러는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겠습니까?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자생중생들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는데, 내 식구들의 자생중생들을 전부 포함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헤아릴 수도 없겠지요. 내 자생중생들의 마음으로 인해서 이 집이 성립된 거거든. 이 집이 생긴 거거든, 이 집이 생겼으면 그 자생중생들의 심부름꾼이자 관리인이자 집합소이지, 어째서 그것이 '나' 나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허, 색(色)이 즉 공(空)이며 공이 즉 색이 아니라, 그러니 둘이 아니다. 그대로 더불어 사는 한 공체(共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심(共心)이자 공체(共體)이자 공용(共用)이자 바로 공식(共食)이자 공생(共生)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 라고 내놓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나' 라고 내뱉다 하면 손해가 가요. 여기 수만 명이 이렇게 한데 합쳐서 살고 있는데, 바다라고 합시다. 바다가 이거는 내 물이고, 이거는 내 물이고, 이거는 내 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물을 떠가도 '아, 떠가나 보다.' 할 뿐이죠. 줄지 않고 더불어 살기 때문에, 바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바다라면 내 마음을 한 번 주고 두 번 준다 해도, 상대방이 떠간다고 하더라도 줄지 않는 거다 이거야. 마음이 바다와 같아서, 더불어 살기 때문에, 공생이기 때문에, 공심이기에, 공생이기 때문이다 이거야. 그 공생으로 살고 공체로 사는 그 속에서 어떻게 '내' 가 업이 있고 번뇌가 있고 병고와 있고, 가난이 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애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신기한, 묘한 마음 씀씀이에 달려 있어요. 내가 살아오던 관습에 의해서 이날은 손이 있으니까 이사를 못간다고 하고 생각을 하면 진짜 손이 있게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와 돌아가는 날, 가서 좋은 날, 내가 택하면은 그냥 법이다 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대로 법이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공동체이기 때문이예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이 몸뚱이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살고 있죠. 그런데 나라고, 내가 산다고 하고, 내가 밟았다 하고, 내가 걸었다 하고, 내가 고통이라고 한다면 고가 있는 데로 착각 불조. '오' 하면은 수천 가지가 한데 합쳐진 고예요. 고통이라는 건 새록새록이 많은 거죠. 그 고통을 혼자 짊어졌다고 한다면, 혼자 짊어지게 되면 그냥 혼자 나타나는 거죠. 그 고통이 말도 할 수 없이, 그러나 더불어 같이 한다면 다르지요. 그래서 주인공이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사는 생명들인데 내가 혼자 산단 말을 안 해도, 내가 혼자 사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살고, 잘 했어도 자기가 했고 못 했어도 그렇고. 그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모두? 그런데 그거를 바꿨 보세요. '응, 더불어 같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거요.

그러니까 자기 몸뚱이도 빼놓지 않고 주인공이예요! 더불어 같이한 거니까 같이한 그 속에서 그것을 해결 해야죠? 자기 혼자 아니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명들이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동체 속에서 그렇게 했으니가 그렇게 해야죠. 응? 같이 잘못했으면 같이 그 잘못된 거를 해결 해야지, 내가 혼자 이렇게 깨닫거리니까 '흥, 너 혼자 했으면 너 혼자 말아라.' 이러곤 그냥 다 안겨진단 말입니다. 안겨지니까 꼭 고통을 받아야지.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갔는데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더라는 거야, 느낌이, 이거는 꼭 가다 구를 것 같고 이상하더라는 거죠. 그러는데 무슨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은 '더불어 같이 주인공이, 그렇게 자빠지게 하는 것도 너니까 괜찮게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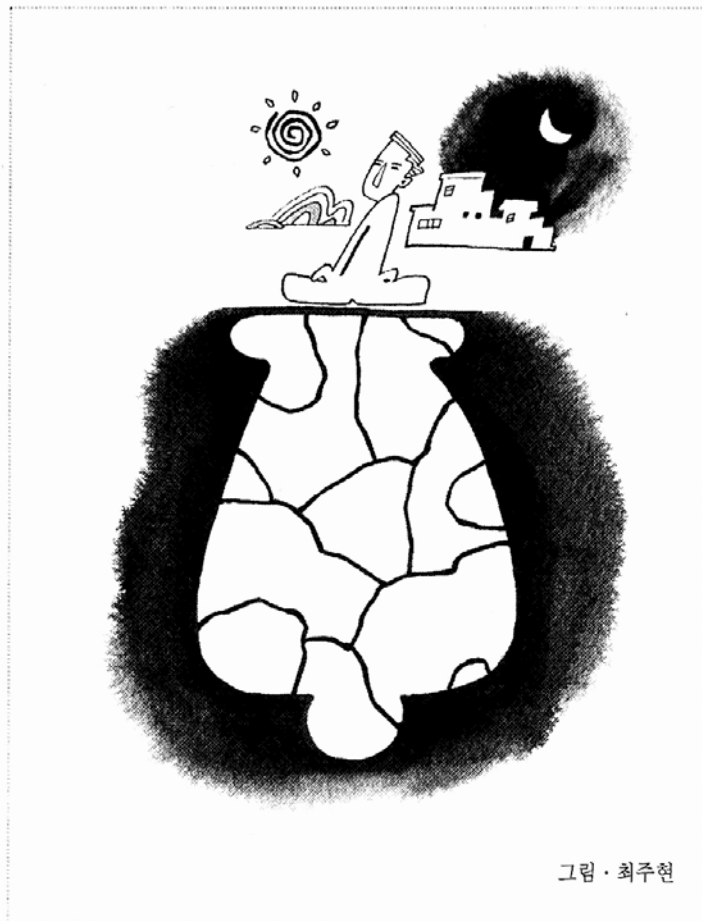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 라고 세우면 곱가 붙지만 더불어 같이하면 업 없어요

것도 너다. 에이고, 죽든 살든 알아서 너 해.' 하고 그냥 가다 보니까, 정말 이 차가, 그러니까 운전수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그냥 내리굴렀대요. 굴러서 차는 바스러졌는데 운전수도 하나 다친 데가 없고, 자기도 다친 데가 없고, 또 탄 사람도 다친 데가 없고, 아주 사람은 그냥 감쪽같이 멀쩡하고 차만 그냥, 그냥 사람을 내던져 놓고 차만 굴러가서 박살이 났더라는 거예요.

생활자체가 부처님 법

그래서 일어나서는 그 한 생각을 하곤 웃었다는 겁니다. '야, 사람은 내던져 놓고 차만 갖다가 박아 놔.' 이러구요. 그리고 이차로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몸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고 그랬죠? 우리도 이 마음이, 그 외식 자체가 하나로 뭉쳐야 해결을 해도 그냥 해결을 하지, 개별적인 한 생각을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예요. 한번 침착하게, 자기 몸뚱이를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몸뚱이가 위성이기도 하고, 블랙홀이기도 하고, 우주이기도 하고, 내 하나를 터득을 하면은, 다 터득이 돼요.

삼심(三心), 삼보(三寶)도 우리가 결국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바라질이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삼보가 있고, 삼심이 있고, 삼심이 일심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과거에도 내가 살았고 현재에도 내가 살고 미래에도 내가 살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받고 낚아 비유해서, 밤이면 저승이고 과거, 낮이면 이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승과 이승이 어떻게 둘로 나누어

졌을까? 밤에 잠을 자야 낮에 일을 하고, 그러니까 밤이 오는 것이 바로 과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낮이 오는 것이 현실이예요. 그래서 밤과 낮이 한데 합쳐져야만 생과 사도 같이 구름에서 이게 진리의 끈이 되죠. 진리의 끈이 됴으로써 그냥 끝없이 돌아가듯이요.

그래서 조금 아까 밥 먹기 전예요, 어떻게 했던 무엇을 들었든 모두 벌써 거르고 왜 버렸어요. 과거가 왜 버렸대구요. 그런데 과거로 생각을 말고 내가 현실에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깝니까, 그러니 과거는 벌써 없애졌지요. 그러니 과거도 현실이요 미래도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현실의 내 한마음이 바로 삼심이요, 그것이 한데 합치면 삼보가 되고,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자기 전체 한마음으로써 더불어 같이 한가운데 삼보를 중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상대가 없죠. 내가 없다면 삼보도 없고, 상대도 없고, 세상이 없고 모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삼보에 귀의하라, 나로부터, 나에게 삼보가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만히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면 그때 부처님 것입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겠다 하면은 법신이자 화신이고, 화신이자 보신이예요. 보신이냐 또 금방 화(化)해서 응신이 돼 버리죠. 그래서 공부한 예전 선지식들께서 '그대로 여여하다.' 이런 소리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니 저거니 이거니 저거니 할 거 없이 그대로, 생활 자체가 그대로 살아가고 그대로 굴러 돌아가는 것이 그

대로 부처님 법이자 너희들의 법이고 생활이 그냥 여여하구나 이런 겁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1: 큰스님 앞에서 이렇게 영광된 자리를 갖게 된 것이 진짜 부처님의 가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전지원에서 법행체에 활동하고 있는 신도입니다. 오늘 설법 중에 믿고 여여하게 욕바라질을 놓아 행하라 하신 말씀, 이미 제가 말씀드릴 것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준비한 것도 있고 또한 제가 평상시에 생활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에 지원에 가서 예불에도 참석하고 또 설법도 듣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설법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잡념이라고 할지 망념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또 제가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도중에도 학생들이 그 가르침보다 잡념, 즉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같은 처지의 도반, 또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딴 생각, 잡념이 있는 학생들한테 일도정진 할 수 있는 큰스님의 인력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천해 볼때 물리터져

스님: 하하하... 그건 선생님께서 그렇게 집중해서 모든 애들한테 에너지를 베풀세요. 그러면은 아마 80%, 70%가 넘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귀에 지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물리를 띄워 주면은 그냥 됩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실천해 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애들이 얼마만큼 더 물리가 터졌나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 해보고 댁에서 지켜보고 댁에서 느껴야지 그게 바로 내 법인 것이지, 내가 먹고 맛을 아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해 줘도 그걸 댁에서 느끼지 못하고 맛을 모르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안 그럴까요? 그렇게 해보세요. 작으니까 다.

어떤 사람은 나한테 '스님은 용(用)만, 용법(用法)만 가르친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말하는 게 우습잖아요. 자기가 먹고 자고 깨고 하는 게 그대로 용인데, 그대로 여여한 우리들의 법인데, 아, 용 빼놓고 송장이 되던 애깁니까? 하하하... 마음이 있음으로써 용이 있고, 생명이 있음으로써 이렇게 용이 있는 거지, 아, 사람이 는 하나만 치켜봐도 용인데, 그거 빼놓고 송장이 되던 애깁니까? 거기 있어서 송장법을 가르칩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용이다, 용이 아니냐를 떠나서 생활 자체가 그대로 바로 부처님이 가르친 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진전이 되고 물리가 터져서 지혜롭게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을까?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무심으로써 무진 영행을 하면서 우주의 법칙 그대로 진출할 수 있을까? 내 마음으로써 그대로 모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무심함으로써 그 진실을 행할까 하는 거 말입니다.

질문2: 저는 광주지원에서 올라왔습니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큰스님을 법교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으로 봐서 제가 전생에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중 웃음) 제가 선원에 첫발을 내디딘 지는 한 3년 됐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자주 나오게 된 지는 한 일 년밖에 되지 않아서 주인공 공부를 많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일 년 되니까 자주 의문이

생기고 그러는데 아까 처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잡념, 즉 '나' 라는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축적돼 온 습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공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쩐지를 잘 알 수가 없을 때가 많고, '나' 라는 집착에 빠져 가지고 자주 이렇게 헤맬니다. 그런데 근기가 약해서 제가 그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누누이 큰스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만 제가 어리석어서 그 행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앞으로 계속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스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선정 지혜를 다시 한 번만 잠깐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그러한 생각이 들든지 어떠한 생각이 들든지, 안에서 일어나든지 바깥에서 닳쳐오든지 간에, 자기가 '좀 보자지 왜 좋질 못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호령을 치세요. '요놈아, 그래도 너라고 자주 그래? 놓지 못하구나!' 하하하... 자문자답하리구요. 이것이 바로 주인공이 됐다가 바로 자기가 중생이 됐다가, 둘 아니게 항상 같이 이렇게... 답답하게 나오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지 딴 데서는 안 나와요. 딴 데서 저고 뺏아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허허, 참, 너 감사하게 하는구나." 이라고 말이에요. 참 그게 재미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야, 그것 좀 보라." 이러기도 하고, "그것 참, 너 참 슬기롭게 잘해 나가구나." 하고 자기 손을 들어서 자기 중등일 쳐 줘요. 하하하... (대중 웃음) "야, 너 슬기롭게 참 잘하는구나." 그러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또 정히 저거한 다면 색깔을 가서 한 번 보면서 색깔에 내비친 그 입에다가 입도 맞추고, 하하하... (대중 웃음)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참, 네 진짜로 진실한 그 마음이 어떠한 무서운 것도 타개해 나가니 참 감사하구나! 빈 손 감사해." 하고 뽀뽀해 해주고, 응, 전체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한 술의 죽밥이야, 즉 한 술에 죽끓는 거와 같애, 그러니까 고가 딴 데서 와서 붙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냥 나한테 수격으로 쳐넣으면 돼. 응? 아주 그렇게, 지꾸지꾸 그렇게 해 봐요. 그러면 거기서 물리가 터져요, 샘솟듯, 꼭 그럴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에게 내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가난함도 무릅쓰고 한 편이 되든 두 편이 되든 심중 깊이 생각하고 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이 공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참 여러분이 본래부터 부처님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그런데 그 사는 데 열매여서 컴컴했었을 뿐이지, 허, 먼지가 끼어서 그럴 뿐이지 본래 부처님이시로구나. 그러니 이렇게 해서 한 편이라도 그냥 새 돈으로 굴러서 그렇게 하는 게 자기 부처님한테 자기가 그렇게 성실하게 산다고 표시를 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스님들이 잘못 마음을 먹고 이걸 거저 생기는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쓰레기 차에 쓰레기를 갖다주는 건데요, 얼른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걸 잘못 알고 금으로 알고 그걸 잘못 쓰게 된다면 참 모두 컴컴하게 한 세상을 또 살게, 이 세상이 또 나올 테니 참, 그것도 잘 생각할 점으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 뜻을 다 해라!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 쓰라고 고사를 드려도 그렇게 잘못 쓰질 않아요. 벌써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요다를 생애, 아니 요다를 생애 아니라, 내일도 요다를 생애니까요. 한번 만나 보시면 내 이 심정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이 뜻을 벗고 요다를 다시 만나! 하더라도 꼭 한 번은 거칠 거예요. 같이 만나볼 거예요. 아, 여러분이 다 부처니까요.

* 위 법문은 1995년 4월 2일 법행체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복은 안위를 닦고 고통은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뿐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통(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5S1 288쪽
값 6,000원
역시아문